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과정

국 승 회

2023년 2월

석사학위논문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과정

국 승 회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of Employees
on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Networks-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과정

국 승 회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진철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과정

국 승 회

국승희의 학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장 용 선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형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진 철 (인)

2022년 11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사회적경제조직	5
1. 사회적기업	6
2. 협동조합	8
3. 마을기업	9
제2절 사회적기업가에 정신에 관한 연구	12
1.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개념	12
가. 개념	12
나. 선행연구 고찰	12

2.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	13
가. 혁신성	14
나. 위험감수성	14
다. 사회적가치 지향성	15
제3절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	17
1. 정부지원	17
가. 개념	17
나. 선행연구 고찰	20
2. 사회적네트워크	20
가. 개념	20
나. 선행연구 고찰	21
제4절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23
1.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	23
가. 개념	23
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23
2.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성과	25
가. 개념	25
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25
제3장 연구설계	27
제1절 연구모형의 정립과 가설의 설정	27
1. 연구모형의 정립	27

2. 가설의 설정	28
제2절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34
1. 변수의 조작화	34
2. 설문의 구성과 측정	37
제3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39
1. 자료의 수집	39
2. 표본의 특성	39
3. 자료의 분석방법	41
제4장 실증분석	42
제1절 측정도구 검증	42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42
제2절 기술통계 분석	45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45
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45
제3절 가설의 검증	48
1.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48
2.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49
3.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50
4.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2

제5장 결 론	69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69
1. 연구결과의 논의	69
2. 연구결과의 시사점	70
제2절 향후 연구방향	72
참고문헌	73
설문지	81

표 목 차

<표 2-1> 사회적기업의 개념	7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36
<표 3-2> 설문지 구성	38
<표 3-3> 표본의 일반적 특성	40
<표 4-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43
<표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45
<표 4-3> 상관관계 분석결과	47
<표 4-4>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49
<표 4-5>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50
<표 4-6>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직접지원의 조절효과	51
<표 4-7>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직접지원의 조절효과	51
<표 4-8>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직접지원의 조절효과	52
<표 4-9>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53
<표 4-10>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54
<표 4-11>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55
<표 4-12>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56
<표 4-13>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직접지원의 조절효과	57
<표 4-14>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직접지원의 조절효과	58
<표 4-15>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직접지원의 조절효과	59
<표 4-16>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60
<표 4-17>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60
<표 4-18>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62

<표 4-19>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2

<표 4-20>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3

<표 4-21>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4

<표 4-22>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5

<표 4-23>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6

<표 4-24>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7

<표 4-25> 가설검증의 요약 68

그 립 목 차

<그림 2-1>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구성	17
<그림 3-1> 연구모형	28
<그림 4-1>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54
<그림 4-2>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간접지원의 조절효과	56
<그림 4-3>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3
<그림 4-3>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2
<그림 4-4>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66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of Employees on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Networks

Kook, Seung Hee

Adviser : Prof. Jung, Jin Chul.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apitalism is evolving and changing. Capitalism began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8th century. The inven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machinery enabled the mass production of products; through this, companies with significant capital could be born. In 1929, there was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rough this, the Keynesian capitalism theory, which emphasized government intervention, was emphasized. Afterward, the neoclassical economics logic focusing on the minimized government regulations prevailed. However, this deepened wealth inequality in society, and problems with greedy capitalism, such as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financial institutions, were later pointed ou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high-tech technology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caused adverse problems. Typically jobless growth,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have occurred in our society, social polarization due to income disparity has become more prominent, and disparities between countries, classes, and regions are accelerating. In order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the 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was set as a national task as a social integration strategy. In Korea,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7 under the government's leadership. This law was enacted to create sustainable employment for the vulnerable and foster a social service supply system.

The social economy is a concept that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order of the capitalist system and is an economic system that aims for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s. While it is challenging to solve the social inequality deepening in modern society with the government's capacity alone, the social econom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subject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social economy differs from the free market economy, based on unlimited competition and profit-seeking. It operates based on the humanistic spirit of mutual benefit and friendship. According to DePourney et al.(2000), the social economy is comprehensively defined as a place that puts people at the center rather than profit or capital and includes cooperatives, mutual aid socie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at value autonomous and democratic management. In addition, the social economy includes social enterprises, village enterprises, and self-sufficiency enterprises.

However, since most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oday focus only on

creating social values, such as supporting the vulnerable and solving social problems, sustainability and growth could be better compared to commercial enterprises. Social entrepreneurship is attracting atten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is a limitation in clarifying how social entrepreneurship makes the social economy sustainable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 componen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form. Therefore,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research on social entrepreneurship, which is the key to self-reliance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Furthermore, after identifying the social network, an empirical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network and government support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high-tech.

keywords : Social Economy, Social Entrepreneurship, Government Support, Social Networks, Soci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자본주의는 진화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15세기~18세기의 중상주의를 거쳐, 18세기의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계의 발명과 실용화는 제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 1929년은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케인즈(John M. Keynes)의 수정자본주가 강조되었다. 케인즈는 국가 경제가 침체에 직면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정부 규제 등의 축소를 주장하는 1980년대의 신고전주의 경제 논리가 강조되었지만, 이는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후 리먼 브러더스 금융기관의 파산 등 탐욕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가져왔다. 자본주의와 첨단기술 발전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사회의 불평등을 이야기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고용 없는 성장과 실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경우가 심해지고,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국가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격차는 가속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전 세계에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였고, 경쟁우위를 갖지 못한 국가나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과 함께 시장에서 물러나곤 하였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기술혁신과 개발 노력은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원리를 심화시켰고,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어가곤 했고, 이는 바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었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200년 전 프랑스에서 그 의미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체로 이해하고 있다(김신양, 2022). 즉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 기업들을 통칭하여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중간에 있는 제 3섹터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영역은 기존의 경제학 논리들이 전체 부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고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김신양, 2022).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제정되는 목적은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육성에 있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자본주의 체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으로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경제체제이다.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점증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회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체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우애의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무한경쟁과 이윤 추구를 근간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구별된다. Defourny, Develtere, Fonteneau(2000)는 사회적경제를 ‘이윤이나 자본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놓으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가치로 삼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일반 영리기업은 경제적성과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취약계층지원,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만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은 영리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적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그 방향성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있다(조상미·간기현·조정화, 2021). 영리기업의 성공의 저변에는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위험감수와 모험투자를 수행하는 기업가가 존재해왔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이 상대적으로 그 존재성이 미약한 편이다. 단순히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자를 사회적 기업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조희진·장용석, 2016). 따라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어떤 성과를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의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가의 정체성 파악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가를 범주화하거나 설명할 때 행동이나 특성, 혹은 역량, 리더십이나 성과 등의 다양한 관점을 기준한다. 사회적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무엇일까?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그 실체를 규명한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가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그 효과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사자가 인식하는 사회적기업가의 정체성 특징을 규명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적성과의 인과성을 설명하는데 개입되는 조절변수로서 사회적네트워크와 정부지원을 들고 그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부의 직접·간접지원요인과 사회적네트워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정부의 직접·간접지원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사회적네트워크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관련된 4개 형태의 조직(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재활기업)으로 통칭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김신양(2022)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20년에 불과하지만, 프랑스와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사회적경제 대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는 본질과 다르게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더 나아가 김신양(2022)는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정부정책의 도구가 되고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김신양(2022)는 200년의 넘는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접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체로서 표현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개념은 역사성과 복합성이 배제된 채 아주 협소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 유형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하며 사회적경제는 곧 ‘사회적경제기업의 합’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직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영국과 북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역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성격은 차이를 보인다. 유럽은 1970년대에 복지국가로서의 위상 및 그에 따른 위기의식을 인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부상조를 위한 상호공제조합과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시작하였다. 영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표의 비즈니스이며, 그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익 최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표를 위해 비즈니스 또는 공동체에 재투자된다.” (Aiken, 2006에서 재인용). 미국의 경우 1980년대 국가 경제가 위축되면서 비영리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조영복, 2007). 또한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사회적기업가로 인식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목적과 유리된 채 고용창출의 지표 상승을 위한 부분적 목적이 함유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전개되고 이후 실업과 양극화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공공근로의 성격을 넘지 못한 한계로 인해 결국 유럽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2007년 55개소(1,4%)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2022년에는 총 3,876개소(100%)로 증가하며 약 70배의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은 최근 많은 연구와 함께 사회적경제 구축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장원봉(2006)은 사회적경제를 ‘자본과 권력을 핵심 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 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으로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서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기업의 주요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1> 사회적기업의 개념

연구자	사회적기업 개념
Dees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화를 공급하는 민간조직
Campbell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에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 활동 •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보편화시키는 조직
OECD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목적을 경제적 사회적 목표 실현에 두고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조직
E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 • 낙후된 지역의 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2.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영역이며 자본주의 역사 이전부터 함께하여 왔다. 산업혁명과 대자본의 지배력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강한 힘에 대한 대안적 사고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자들의 연대에 의해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형성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은 국제사회가 시장실패, 정부실패,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이후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기업모델로서 협동조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송인방, 2013).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에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하 ICA)의 협동조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공통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라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설립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송재일, 2013).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비정부적 성격, 다중이해관계자와 조합원 구조, 노동자 조합원의 상당한 대표성, 잉여

무배분 혹은 제한된 배분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경제·사회·문화라는 종합적인 필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교육, 참여, 지역에 대한 기여 등 중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임준형·김장호·전의천. 2013).

ICA는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원칙을 계승하여 가입의 자유(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1인 1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렇게 7가지를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차이는 의사결정구조에서 협동조합은 1인 1표에 의한 의결인 반면, 주식회사는 1주 1표로 자본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고, 목적에서도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목표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질적 향상이 목표로, 둘의 차이는 극명해 보인다.

3.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본래 Community Business(이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유래된 말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말의 기원은 1970년대 중반 설립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Community Business Scotland(CBS)’라는 지원 조직 형태의 유한회사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영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고용과 지역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

호소우치 노부타카(2008)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 커뮤니티를 기점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 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신경희, 2012).

마을기업의 등장 배경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진입함에 따라 지역의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가 부활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마을기업은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유대감과 자긍심을 높인다. 또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경제 순환 체계를 만들어 내며 지역의 고용 촉진으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임경수·하태영, 2013).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적·물적·정신적 자원에 기반을 두며 지역의 문제를 다루면서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을기업은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유연한 조직 형태를 가지며,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의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신경희, 2012).

마을기업의 구분에는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으로 ‘자립형 마을기업’이 있고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구분한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성과 수익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이지만 마을기업은 여러 측면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재선, 2011).

마을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 추구에 주력하는 반면에,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임경수·하태영, 2013).

제2절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

1. 사회적기업가 정신

가. 개념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일반 기업가정신과 구별되며,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관련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주체자 관점에서 설명된다(Anderson, 1990).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에 대한 주체로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은 여러 문헌과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가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촉진자 소임을 수행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공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Weerawardena · Mort, 2006),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제한된 자원을 잘 활용하여 기회를 모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Peredo · McLean, 2006).

나. 선행연구 고찰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의 연관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광우·권주형, 2009; 장성희·반성식, 2011)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사회목적 추구로 정의하였다. 조직 운영에 있어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매우 중요하다

(배귀희, 2011). 사회적기업가의 생애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동원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성희, 반성식(2010)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지향성으로 분류하여 기업가 지향성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으로 자원을 재분배 또는 재결합하는 활동으로서, 시장지향성은 고객의 가치 창출과 경쟁에 대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용탁(2009)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환경의 복잡성, 불확실성에 기업가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혁신추구성, 진취성, 위험관리활동 등으로 정의하였다. 덧붙여, 그는 사회적기업의 기업가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

학자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달리한 만큼 그 구성요소도 다양하다. 다만 사회적기업가 정신 자체를 핵심 주제로 살펴본 연구 중 다수가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를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사회적 가치 추구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조상미 외, 2021).

Helm · Andersson(2010)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기업가 정신 구성요소로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 목적 추구 등과 같은 구성개념을 강조하였다(배귀희, 2011; 이용탁, 2009).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하위 구성요소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 지향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혁신성

혁신성(innovativeness)은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실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지원해주는 성향을 의미한다(Lumpkin · Dess, 1996). 기업들은 제품의 제품혁신, 공정혁신, 관리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프로세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기술적 리더십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존의 기술 및 운영 프로세스를 벗어나려는 행동을 취한다(Rauch et al., 2009). 이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경우 기존의 기업, 조직 운영 방식 및 의사결정 방식,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와 해결책을 찾으려는 혁신 등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다(현용수, 2014).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한정된 수익을 창출하는 비영리조직이나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시장·공공·시민사회)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기업운영 수익을 창출되기 때문에 혁신성을 기반으로한 수익원 다양화, 생산방식의 차별화 등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오상환, 2018).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크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의 측면에서 기존 조직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혁신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법적인 형태는 주식회사의 형태이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운영 방식, 의사결정 방식의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 바탕에 혁신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최조순, 2012).

나.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의미한다(Sexton · Bowman, 1986). 이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위해

실패로 인한 비용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 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우형록·권정언, 2013).

위험감수성은 새로운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려는 성향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혹은 가치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작동할 때 발휘된다고 한다(Kuratko · Hodgetts, 2004). Morris · Paul(1987)은 위험감수성은 적절하게 계산되고 극단적이지 않으며 기업이 통제 가능한 위험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의 내적·외적 운영 시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전략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 운영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따라오는 부정적 측면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일반 벤처기업과는 다르게 낮은 위험의 사업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발현된다(임재웅·장석인, 2018).

다.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사회문제의 문제를 인지하고 사회적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즉,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최조순, 2012). 일반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가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에 대한 우수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Dees, 1998). 이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사회적경제조직에게 가장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에는 개인적 혹은 사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Peredo · McLean, 2006).

사회적경제조직은 변혁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에 적응시키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목적은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하게 하는데 필수요소가 되게 한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활동 영역, 목적, 업종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관련이 있다(Defourny et al. 2000). 이러한 사회적가치 지향적인 특성은 지역의 요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수준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스스로가 원해서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최조순, 2012).

제3절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

1. 정부지원

가. 개념

정부지원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해야 하며, 지역 간 상생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만의 협력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성장지원(경영지원, 판로지원, 자원연계), 창업지원 등을 제공하며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 중 재정지원은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지원하는 모든 금액이 해당되며, 정부지원은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과 기타 정부지원이 해당된다. 민간지원은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민간금융 지원, 기타 민간지원이 해당된다(<그림 2>).



<그림 2>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구성

먼저 정부지원 중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각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의 건실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돕기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 전략기획,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할 경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셋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브랜드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 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회적기업은 연 1억 원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5천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일부를 4년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 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회계, 시장개척,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경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수행계획서의“목적 및 추진 의지, 수행방안,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별 지원을 받는다.

여섯째,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감면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를 감면하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50%를, 재산세는 25%를 감면한다.

일곱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여덟째, 판로지원을 수행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유통채널에 입점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있다.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상품의 진단과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채널에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88개(’20년 12월 기준)의 오프라인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스토어 36.5)도 운영된다.

아홉째, 금융지원 정책이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자금으로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클라우드 펀딩이 운영되고 있다.

열째, 융자 지원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는 중소기업정책자금, 미소금융 등 타 부처의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나. 정부지원의 선행연구 고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지원이 사회적경제의 조직성과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 영향 관계를 정(+)적 영향을 또는 부(-)적 영향 관계로 보고하여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재홍·이재기, 2012; 도수관·박경하, 2014),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에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고명일·양난주, 2019). 또한 정부지원은 사회적기업의 매출 순이익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고명일·양난주, 2019), 정부지원 중 사회보험료 지원이 매출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명일·양난주, 2019). 하지만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학술 평가도 있었다. 정부지원 비율은 취약계층 자체 고용비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윤경옥 외, 2018), 정부지원 중 전문인력지원이 사회적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숙연·강수진, 2017). 한편 기업의 운영 기간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달리 나타나며(강석민, 2014),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 시 기업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네트워크(social network)

가. 개념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학을

중심으로 신뢰, 사회적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과 규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 및 사회적네트워크의 특징 등의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발전하여 경제학·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과 조직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커뮤니케이션, 사회적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인 관계 하에서 나타나는 모든 무형의 자산” 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적네트워크(Social Network)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이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구조에 속해 있는 자원이라고 볼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는 다르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특정 목적에 대한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적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사회적네트워크 활동은 기업이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 차지 및 외부 자원을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와 전략적이고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Jarillo, 1989; 문주상 등 2020). 사회적네트워크는 인적자원과 함께 물적 자원, 전문지식을 동원하는 중에 제3자가 당장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업에 자본과 노동력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문주상 등, 2020). 특히 사회적네트워크는 개인들 간의 대면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로 대표되며, 이러한 사회적네트워크들이 신뢰와 규범의 시민참여의 역량을 증진시킨다.

나. 사회적네트워크의 선행연구 고찰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양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동의와 지원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성과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박현희·심동철, 2017).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조직성과는 지역의 사회적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역학 관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Zhao · Aram(1995)은 사회적네트워크의 다양성과 강도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Walker et al.(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 내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사회적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네트워크 창출에 유의한 것을 검증하였다. 박진아 등(2016)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정부 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적 역할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진취성과 직무 관련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이 경제적 기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네트워크와 정부지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4절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1.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

가. 개념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는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내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식된다(조상미 외, 2021). 사회적경제의 운영 성과에는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비재무적 가치가 가장 핵심이며, 사회적성과를 최우선으로 인식한다. 사회적성과 역시 EMES의 기준을 적용한다. EMES는 사회적 기준을 ①지역사회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②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의사결정 ③제한된 이윤 배분, 사회적가치 추구 ④지역 내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참여 ⑤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다섯 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거점을 둔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유관기관과 사회적네트워크 연계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지니며,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다.

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조직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그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적성과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사회적성과 혹은 경제적성과와의 부분적인 영향 관계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세부 요인과 사회적경제의 조직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성별에 따른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성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증 사회적기업과 생활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 향상 모델에서 조직의 내부역량만 사회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내부자원 중 핵심역량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또는 경영역량 중 리더십 등이 사회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최무현·고은주, 2019)가 나타났다. 자율경영공시자료를 토대로 조직성과를 연구한 결과 조직형태와 인증유형에 따라 사회적 성과가 차이를 보였다(홍효석·김예경, 2016; 김희철, 2017).

장영란 등(2012)은 조직구성원과 기업의 특성으로 나누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최고 경영자의 역량, 종업원 역량, 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사회적기업 인증 시 성적이 높을수록 조직의 경제적성과는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권·방호진(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역량과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성과를 지역의 일자리제공, 지역주민과 사회로부터 환영받음, 지역사회에 재투자 등으로 구성하여 측정분석하였다. 이에 기업가정신,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시장정보지향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수와 최균(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네트워크 역량, 재무역량이 사회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성과

가. 개념

사회적경제조직은 ‘기업’형태로 운영되기에, 일반 영리기업과 같이 경제적가치를 추구하며 경영성과, 이윤창출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경제의 경제적성과는 대표적으로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수익률 달성, 순편익, 경제적성과 인식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조상미 등, 2021b). 강문실·김윤숙(2016)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 경영자립도 향상, 고객 만족 증가, 자원 개발 목표 달성, 예산 효율성, 시설투자 증가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성과를 측정하였다.

경제적성과는 보편적으로 EMES의 경제적 기준을 적용한다. EMES에서는 경제적-경영적 기준을 ①지역사회의 목적과 목표 추구 ②재화 생산과 용역 판매를 지속적으로 수행 ③최소한의 유급노동자 고용 ④상당 수준 경제적 위험 감수 ⑤높은 수준의 자율성의 다섯 가지로 삼고 있다.

이는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의 빈곤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되어 지역의 경제적 불평 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남승균, 2016).

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경제적성과는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형의 사회적성과와 재무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제적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경제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원식, 2009).

사회적기업가 정신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시장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경영성과 중에서 시장점유율과 판매비중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Matsuno et al., 2002). 이진민·이상식(2017)은 성공요인을 전략, 경영역량, 사업 환경,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하여 조직의 경제적성과를 매개로 하여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업 환경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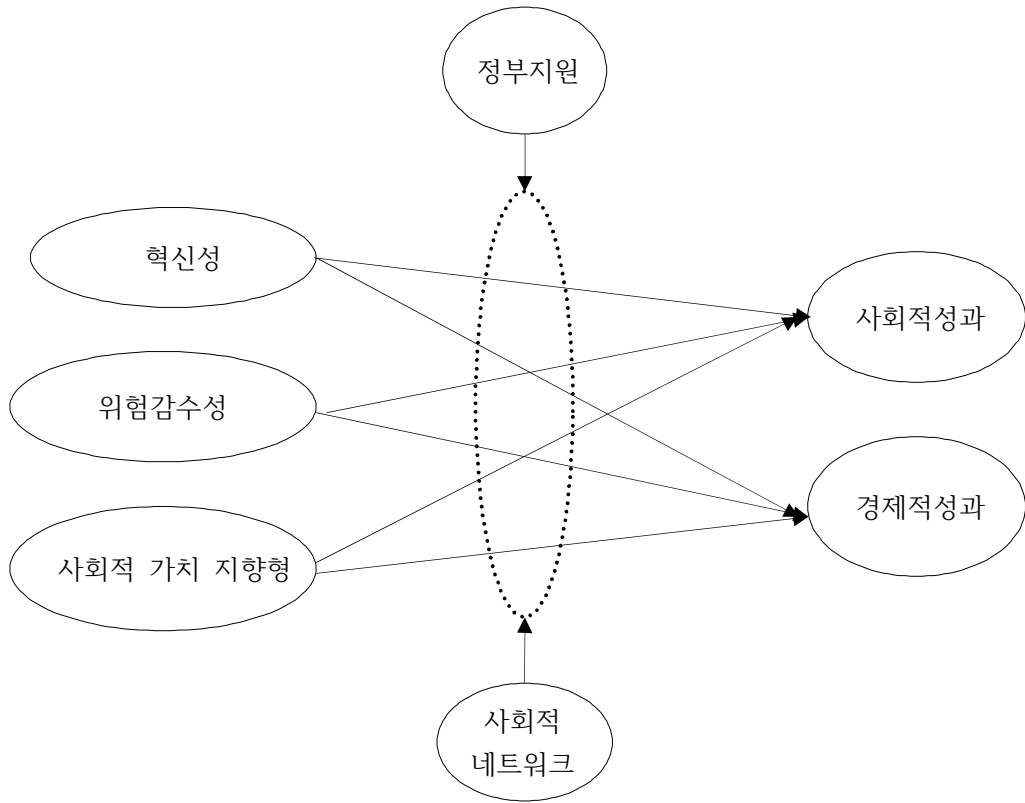
김희철(2017)은 조직의 특성 중 외부지원 수혜액과 인증연수가 경제적성과인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조직형태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창권·방호진(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 핵심역량 중 기업가정신과 사회적네트워크는 경제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의 정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조직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지향성의 3가지 하위 변수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조직성과의 하위 변수인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조절변수는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를 선정하여 정부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분류하고 사회적네트워크는 단일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3개의 하위 변수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지향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사회적경제의 조직성으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2개의 하위변수를 선정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정부지원을

선정하여 정부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일요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사회적기업가의 정신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는 정(+)의 영향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김용태(2012)는 사회적기업의 창업가 정신이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직접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관련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성희·이경탁(2017)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공익성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자본과 조직의 공익성과 및 고용 창출을 모두 증가시키는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재웅·장석인(2018)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요인 간의 영향관계에서 정부지원에 따른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일부 구성요소 즉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등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사회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혁신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위험감수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사회적 가치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사회적기업가의 정신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성과는 정(+)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조직의 경제적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이상영(2015)은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경제적성과에 유효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문실·양성국(2016) 연구에서도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조직의 경제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혁신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위험감수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사회적가치지향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정부의 직접·간접 지원의 조절효과

정부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함께 시작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김숙연(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지원기업이 미지원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직접지원을 받을수록 지속가능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옥 등(2018)의 연구에서도 경영성과에 정부지원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자율경영공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 자체 고용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여 사회적경제의 자립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형돈(2019)은 문헌 고찰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정부지원이 경제적성과를 감소시키고 사회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의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 정부지원은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1: 정부 직접지원은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2: 정부 직접지원은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3: 정부 직접지원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4: 정부 간접지원은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5: 정부 간접지원은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6: 정부 간접지원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 : 정부지원은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1: 정부 직접지원은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2: 정부 직접지원은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3: 정부 직접지원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4: 정부 간접지원은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5: 정부 간접지원은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6: 정부 간접지원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Baron · Markman(2000)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창업가의 사회적네트워크 활동은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외부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정부와 지자체, 주변 지역기업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현희·심동철(2017)은 사회적네트워크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밀착도를 증가시켜 사회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서 정당성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최석현·남수연(2015)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직 성과는 기업내부역량으로 좌우되며 사회적네트워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고하여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네트워크의 긍정적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사회적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5-1: 사회적네트워크는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5-2: 사회적네트워크는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5-3: 사회적네트워크는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6: 사회적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6-1: 사회적네트워크는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가설6-2: 사회적네트워크는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6-3: 사회적네트워크는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척도, 조직성과 척도, 정부지원 척도, 사회적네트워크 척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독립변수: 사회적기업가 정신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사회적기업가로서 혁신성, 위험감수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혁신성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제품과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개발 창출 등을 목표로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성향이라 할 수 있다(Lumpkin · Dees, 1996).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관심,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수용, 다른 기업에 앞서 나가는 노력으로 구성하였다.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의 예상에도 과감한 도전에 대한 의지의 정도를 나타낸다(Sexton · Bowman, 1986). 본 연구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업무 수행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개발에 기여, 사회적인 미션 수행에 대한 자부심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Sauber(1995), Miles et al.(2013), 임현지(2019),

최조순(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혁신성 5문항, 위험감수성 3문항, 사회적가치 지향성 6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나. 종속변수 : 조직성과

본 연구에서의 조직성과는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성과는 지역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친밀감 인식, 공익적 사업 투자 등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사회적성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성과는 사회적경제의 매출의 증가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의 증가, 경영자립도의 향상 등 경제적성과를 구성하는 수익률 증가를 지표로 경제적성과를 측정하였다. 이광우(2008), 장영란 등(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10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다. 조절변수

(1) 정부지원

본 연구에서의 정부지원은 최미금(2017)의 연구를 토대로 직접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직접지원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간접지원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직접지원 2문항, 간접지원 5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 사회적네트워크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네트워크는 ‘조직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으며 인근 기업이나 기관과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창권·방호진(2019)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4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출처
독립 변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혁신성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 수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 경쟁기업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태도	Sauber(1995), Miles 등(2013), 최조순(2012), 임현지(2019)
		위험 감수성	이익 추구를 위해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태도와 수익 창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성향	
		사회적 가치 지향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사회적 미션수행의 목표 수행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 개발, 안정 및 사회에 안정에 기여하는 것	
종속 변수	조직 성과	경제적 성과	고객만족도의 상승과 매출의 증가로 수익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경영자립도의 향상	이광우(2008), 장영란(2012),
		사회적 성과	민주적 소통체계를 가지고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친근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이익을 공익적 사업에 투자하여 사회적 안정화 기여	
조절 변수	정부 지원	직접 지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	최미금(2017)
		간접 지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체제	
	사회적네트워크	조직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으며 인근 기업 및 기관과 호의적인 관계유지		이창권·방호진(2017)

2. 설문 의 구성 과 측정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Sexton · Bowman(1986), Merz와 Sauber(1995), Miles et al(2013), 김용태(2012), 임현지(201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측정항목은 혁신성 설명 5개 문항, 위험감수성 설명 3개 문항, 사회적가치지향성 설명 6개 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성과의 사회적성과는(김순양, 2018; 최조순, 201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10개 문항을, 경제적성과는 Baum et al. (2001), 장영란 등(2012), 이진민·이상식(20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부지원은 최미금(2017)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직접지원 2개 문항, 간접지원 5개 문항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네트워크는 Moshe and Lerner(2006), 이창권·방호진(2019)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4개 문항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표 3-2>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	설문문항	문항 수	척도
독립변수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성 우리 조직은 새로운 시장개척을 선호한다. 우리 조직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관심이 많다. 우리 조직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우리 조직은 사업수행에 있어 경쟁적 태도를 갖는다. 우리 조직은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가려고 노력한다.	5	5점 Likert 척도
		위험감수성 우리 조직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 창출에 가능한 사업에 도전한다. 우리 조직은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조직은 이익 추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감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적가치지향성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 일자리제공 및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조직은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 우리 조직은 사회적 직무에 대해 헌신적이다.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우리 조직은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우선시 한다.	6	
종속변수	조직성과	사회적성과 우리 조직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조직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조직은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조직은 이익을 공익적 사업에 투자한다. 우리 조직은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5	
		경제적성과 우리 조직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조직은 수익적 목표를 달성하였다. 우리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우리 조직은 매출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적당하다. 우리 조직은 경제자립도가 향상되고 있다.	5	
	직접지원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적절하다.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적절하다.	2	
	간접지원	정부의 사회적경제의 상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는 적절하다.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지원은 적절하다.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영지원은 적절하다. 정부의 기업가 육성사업은 적절하다. 정부의 기업가에 대한 교육 및 아카데미는 적절하다.	5	
	사회적네트워크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부터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고 있다. 우리 조직은 인근 지역기업과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조직은 정부 및 지자체와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조직은 어려운 문제나 조직발전을 위해 회사 내, 외부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4	

제3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과 정부의 직접·간접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내의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남성이 44명(39.6%), 여성 67명(60.4%)으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15명(13.5%), 30대가 23명(20.7%), 40대가 26명(23.4%), 50대가 39명(35.1%), 60대가 8명(7.2%)로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30대, 2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묻는 질문에는 대졸이 70명(63.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졸이 27명(24.3%), 전문대졸이 9명(8.1%),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명(4.5%) 순으로 나타나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87.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근속연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19명(17.1%), 3년 이상~6년 미만이 26명(23.4%), 6년 이상~9년 미만 23명(20.7%), 12년 이상이 43명(38.7%)로 설문의 응답자 가운데 12년 이상 근속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사자 수는 10인 미만이 38명(34.2%), 10인 이상~30인 미만이 46명(41.4%), 30인 이상 60인 미만이 22명(19.8%), 60인 이상 90인 미만이 2명(1.8%), 90인 이상이

3명(2.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대표가 38명(34.2%), 관리직 12명(10.8%), 일반사원이 61명(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표본의 일반적 특성 (n=111)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4	39.6
	여	67	60.4
연령	20대	15	13.5
	30대	23	20.7
	40대	26	23.4
	50대	39	35.1
	60대 이상	8	7.2
	고졸이하	5	4.5
학력	전문대졸	9	8.1
	대졸	70	63.1
	대학원졸	27	24.3
매출액	5,000만원 미만	12	10.8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29	26.1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1	27.9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6	23.4
	50억원 이상	13	11.7
근속년수	1년 미만	0	0
	1년 이상~3년 미만	19	17.1
	3년 이상~6년 미만	26	23.4
	6년 이상~9년 미만	23	20.7
	12년 이상	43	38.7
종사자수	10인 미만	38	34.2
	10인 이상~30인 미만	46	41.4
	30인 이상~60인 미만	22	19.8
	60인 이상~90인 미만	2	1.8
	90인 이상	3	2.7
직위	대표	38	34.2
	관리직	12	10.8
	사원	61	55.0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SPSS 23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각 설문 문항들이 동일한 적재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Cronbach's α 를 사용하여 설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변수 간의 관련성의 여부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수 간의 영향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측정도구의 검증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타당도는 측정한 값이 측정하고자 한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만큼 실제에 가깝게 반영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확인을 위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를 축소시키거나 단순화시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묶어 주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SPSS 23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은 변수의 하위 요인 수로 고정하고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선택 기준을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으로 하고, 요인 적재치는 0.4이하인 항목들은 문항 중요도가 낮아 제거하여 각변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6이상이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표 4-1>과 같다.

<표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KMO	
사회적 기업 가치	혁신성	혁신성3	.748	.695	2.114	17.616	.754	.838
		혁신성4	.637	.590				
		혁신성5	.805	.728				
	위험 감수성	위험감수성1	.809	.720	2.283	19.021	.789	
		위험감수성2	.796	.671				
		위험감수성3	.779	.708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가치지향성1	.775	.733	3.833	31.941	.898	
		사회적가치지향성2	.767	.747				
		사회적가치지향성3	.845	.775				
		사회적가치지향성4	.803	.659				
		사회적가치지향성5	.727	.607				
		사회적가치지향성6	.754	.597				
조직 성과	사회적 성과	사회적성과2	.832	.692	2.171	43.429	.811	.695
		사회적성과4	.880	.774				
		사회적성과5	.845	.714				
	경제적 성과	경제적성과2	.868	.753	1.523	30.468	.665	
		경제적성과4	.868	.753				
사회적 네트워크	네트워크1	.823	.678	2.479	61.965	.793	.758	
	네트워크2	.835	.697					
	네트워크3	.801	.641					
	네트워크4	.680	.463					
정부 지원	직접 지원	정부지원1	.907	.823	1.872	26.738	.784	.774
		정부지원2	.907	.823				
	간접 지원	정부지원3	.744	.553	2.382	34.032	.761	
		정부지원4	.729	.527				
		정부지원5	.726	.486				
		정부지원6	.697	.467				
		정부지원7	.684	.531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14개 문항 중 2개 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2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문항 제거 없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10개 문항 중 경제적성과 1, 3, 5가 잘못 적재되어 제거하였으며 제거 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성과 1, 3은 신뢰도 분석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변수인 정부지원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사회적네트워크는 단일요인으로 구분되어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분석하였다.

제2절 기술통계 분석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의 정규 분포성 확인을 위해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정규성을 보여주는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응답 수준을 살펴보면 5점 척도 중 평균은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681~1.026 수준으로 안정적인 분산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규성을 살펴보면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절대값 2미만으로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et al., 1995).

<표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혁신성	2.00	5.00	3.5225	.79851	.303	-.646
위험감수성	1.67	5.00	3.4535	.78469	.089	-.367
사회적가치지향성	2.00	5.00	3.7492	.73336	-.336	-.318
사회적성과	1.33	5.00	3.4535	.72306	-.481	.170
경제적성과	1.50	4.50	3.1126	.71568	-.463	-.188
직접지원	1.50	5.00	3.2207	.81096	-.004	-.676
간접지원	2.00	5.00	3.2018	.58558	.670	1.312
사회적네트워크	2.00	5.00	3.3994	.77697	-.091	-.400

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 관련성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두 변수 간 관계가 정(+)이나 부(-)의 방향으로 클수록 상관계수는 +1또는 -1에 가깝게 나타난다. 한편

상관계수 0은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핀 결과 혁신성은 위험감수성(.557), 사회적가치 지향성(.490), 직접지원(.489), 간접지원(.244)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성과, 사회적네트워크와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위험감수성은 사회적가치지향성(.367), 사회적성과(.286), 직접지원(.375), 간접지원(.25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성과, 사회적네트워크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적성과(.495), 사회적네트워크(.395), 직접지원(.225), 간접지원(.342)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성과와는 부적상관(-.075)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회적성과는 사회적네트워크와(.464), 간접지원(.286)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성과는 사회적성과(.281), 사회적네트워크(.387), 간접지원(.347)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지원과는 정적상관(.184)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회적네트워크는 간접지원(.390)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지원은 직접지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49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성별	1.60	.491	1												
2.연령	3.02	1.183	.153	1											
3.학력	3.07	.710	.239*	.464**	1										
4.매출액	2.99	1.187	-.037	.253**	.303**	1									
5.근속년수	3.81	1.132	.174	.505**	.413**	.391**	1								
6.혁신성	3.5225	.79851	-.070	-.081	-.019	.101	.023	1							
7.위험감수성	3.4535	.78469	.015	.203*	.251**	.226*	.213*	.557**	1						
8.사회적가치지향성	3.7492	.73336	.104	-.330**	-.055	.163	.012	.490**	.367**	1					
9.경제적성과	3.1126	.71568	-.182	-.169	-.115	-.004	.004	-.173	-.030	-.079	1				
10.사회적성과	3.4535	.72306	-.078	-.293**	-.064	.135	-.068	.280**	.286**	.495**	.281**	1			
11.사회적네트워크	3.3994	.77697	-.153	-.430**	-.141	-.032	-.199*	.092	-.157	.395**	.387**	.464**	1		
12.직접지원	3.2207	.81096	-.155	-.047	.193*	.205*	.041	.489**	.375**	.225*	.184	.053	.102	1	
13.간접지원	3.2018	.58558	-.086	-.255**	.000	-.042	.042	.244**	.251**	.342**	.347**	.286**	.390**	.491**	1

*: P<.05, **: P<.01

제3절 가설의 검증

가설 검증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에 관해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그 진위를 검증함으로써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검증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에 대한 구성 개념들 간의 영향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SPSS 23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정부 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을 종속변수는 조직성(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정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혁신성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0.405(p=.686)$ 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위험감수성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1.878(p=.063)$ 로 나타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3.301(p=.001)$ 로 나타나 가설 1-3은 채택되었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사회적 성과	성별	-.120	.130	-.081	-.917	.361	.860	1.163
	연령	-.133	.070	-.218	-1.910	.059	.519	1.927
	학력	.008	.102	.008	.079	.937	.675	1.482
	매출액	.059	.057	.097	1.023	.309	.758	1.319
	근속년수	-.021	.066	-.032	-.312	.756	.632	1.583
	혁신성	-.040	.098	-.044	-.405	.686	.574	1.741
	위험감수성	.189	.101	.206	1.878	.063	.563	1.775
	사회적가치지향성	.358	.108	.363	3.301	.001	.558	1.792

R=.558, R2=.311, 수정된 R2=.257
 F=5.764, p=.000, Durbin-Watson=1.864

2.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혁신성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275(p=.025)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위험감수성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690(p=.094)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되었으며 사회적가치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917(p=.361)로 나타나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이런 결과는 상관관계 검증 시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과 같은 방향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경제적 성과	성별	-.228	.144	-.157	-1.583	.117	.860	1.163
	연령	-.183	.077	-.302	-2.370	.020	.519	1.927
	학력	-.078	.113	-.078	-.694	.489	.675	1.482
	매출액	.014	.064	.023	.214	.831	.758	1.319
	근속년수	.108	.073	.171	1.478	.143	.632	1.583
	혁신성	-.247	.109	-.276	-2.275	.025	.574	1.741
	위험감수성	.189	.112	.207	1.690	.094	.563	1.775
	사회적가치지향성	-.110	.120	-.113	-.917	.361	.558	1.792

$R=.373$, $R^2=.139$, 수정된 $R^2=.072$
 $F=2.066$, $p=.046$, Durbin-Watson=1.891

3.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의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피기 전 다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만든 후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3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1)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성과 간 영향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핀 결과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표 4-6>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혁신성 투입		직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022	-.015	-.067	-.045	-.067	-.046
연령	-.229	-.374**	-.211	-.345**	-.225	-.368**	-.224	-.367**
학력	.043	.042	.044	.043	.098	.096	.099	.097
매출액	.125	.205*	.109	.179	.122	.201*	.124	.204
근무년수	.018	.028	.010	.015	.005	.008	.004	.006
혁신성			.212	.234*	.291	.322**	.291	.322**
직접지원					-.169	-.189	-.170	-.190
혁신성*직접지원							.009	.009
R ²	.135		.188		.212		.212	
R ² 변화량			.053		.024		.000	
F	3.278**		4.021*		3.963*		3.436*	
F변화량			6.827*		3.121		.009	

분석결과 통제변수만 투입하였을 경우 회귀모형은 사회적성과를 13.5%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혁신성이 유의한 영향($\beta=.291$, $p<.05$)을 보여 설명력이 5.3% 증가하였으나 3단계의 직접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혁신성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위험감수성 투입		직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021	-.014	-.061	-.042	-.058	-.039
연령	-.229	-.374**	-.242	-.396***	-.262	-.429***	-.264	-.432***
학력	.043	.042	-.011	-.011	.025	.025	.023	.022
매출액	.125	.205*	.098	.162	.110	.181	.107	.176
근무년수	.018	.028	.003	.005	-.001	-.001	.003	.005
위험감수성			.306	.332***	.357	.387***	.359	.389***
직접지원					-.143	-.161	-.141	-.158
위험감수성*직접지원							-.024	-.021
R ²	.135		.234		.254		.255	
R ² 변화량			.099		.020		.000	
F	3.278**		5.309***		5.020***		4.359***	
F변화량			13.508***		2.751		.055	

분석결과 2단계 위험감수성이 유의한 영향($\beta=.291, p<.05$)을 보였으나 3단계 정부 직접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4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위험감수성과 사회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사회적가치지향성 투입		직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147	-.100	-.184	-.125	-.150	-.102
연령	-.229	-.374**	-.099	-.162	-.104	-.171	-.113	-.185
학력	.043	.042	.042	.041	.074	.073	.054	.053
매출액	.125	.205*	.061	.101	.069	.114	.031	.050
근무년수	.018	.028	-.019	-.030	-.023	-.036	.006	.009
사회적가치지향			.432	.439***	.457	.464***	.423	.429***
직접지원					-.103	-.115	-.061	-.068
사회적가치*직접지원							-.192	-.170
R ²	.135		.286		.297		.319	
R ² 변화량	.135		.151		.011		.022	
F	3.278**		6.931***		6.210***		5.977***	
F변화량	3.278**		21.928***		1.629		3.351	

분석결과 2단계 사회적 가치지향성이 유의한 영향($\beta=.439, p<.001$)을 보였으나 3단계 정부 직접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4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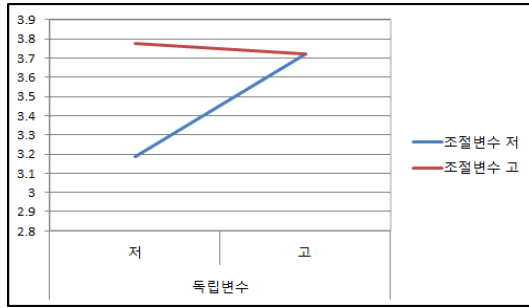
효과를 살핀 결과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에서 간접지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 3-4, 3-6은 채택되었으나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간접지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3-5는 기각되었다.

<표 4-9>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혁신성 투입		간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022	-.015	.001	.001	-.028	-.019
연령	-.229	-.374**	-.211	-.345**	-.170	-.279*	-.168	-.274*
학력	.043	.042	.044	.043	.019	.019	.038	.038
매출액	.125	.205*	.109	.179	.120	.197*	.093	.153
근무년수	.018	.028	.010	.015	-.016	-.025	-.008	-.012
혁신성			.212	.234*	.177	.196*	.161	.178
간접지원					.218	.176	.335	.271*
혁신성*간접지원							-.220	-.205*
R ²	.135		.188		.214		.245	
R ² 변화량	.135		.053		.026		.031	
F	3.278**		4.021***		4.009**		4.145***	
F변화량	3.278**		6.827*		3.382		4.218*	

분석결과 통제변수만 투입되었을 경우 회귀모형은 사회적 성과를 13.5%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혁신성이 유의미한 영향($\beta=.234, p<.05$)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이 5.3%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간접지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4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한 영향($\beta=-.205, p<.05$)을 보여 설명력이 3.1% 증가하였다.

모형의 설명력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F변화량=4.218, $p<.05$) 혁신성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그래프

정부 간접지원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지각된 혁신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성과 수준이 더욱 강화되는 강화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정부 간접지원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지각된 혁신성이 사회적성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정(+)의 방향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0>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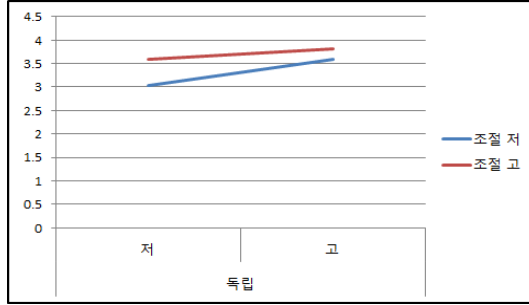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위험감수성 투입		간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021	-.014	-.004	-.002	-.010	-.007
연령	-.229	-.374**	-.242	-.396***	-.208	-.340**	-.217	-.356**
학력	.043	.042	-.011	-.011	-.023	-.023	-.017	-.017
매출액	.125	.205*	.098	.162	.108	.177	.096	.157
근무년수	.018	.028	.003	.005	-.015	-.024	-.001	-.002
위험감수성			.306	.332***	.269	.292**	.272	.295**
간접지원					.165	.134	.186	.150
위험감수성*간접지원							-.107	-.096
R ²	.135		.234		.249		.257	
R ² 변화량	.135		.099		.014		.008	
F	3.278**		5.309***		4.842***		4.406***	
F변화량	3.278**		13.508***		1.958		1.106	

분석결과 3단계 정부 간접지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1>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사회적가치지향성 투입		간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147	-.100	-.121	-.082	-.081	-.055
연령	-.229	-.374**	-.099	-.162	-.081	-.133	-.108	-.177
학력	.043	.042	.042	.041	.026	.026	.033	.032
매출액	.125	.205*	.061	.101	.072	.118	.058	.095
근무년수	.018	.028	-.019	-.030	-.034	-.053	-.017	-.026
사회적가치지향성			.432	.439***	.398	.404***	.307	.312**
간접지원					.140	.114	.280	.227*
사회적가치지향성*간접지원							-.268	-.214*
R ²	.135		.286		.296		.325	
R ² 변화량	.135		.151		.010		.029	
F	3.278**		5.309***		4.842***		4.406***	
F변화량	3.278**		6.931***		6.189***		6.146***	

분석결과 통제변수만 투입되었을 경우 회귀모형은 사회적성과를 13.5%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사회적 가치지향성이 유의미한 영향 ($\beta=.439, p<.001$)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이 15.1%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간접 지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4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영향 ($\beta=-.214, p<.05$)을 보여 설명력이 2.9% 증가하였다. 모형의 설명력 또한 유의하게 (F 변화량=6.146, $p<.001$) 증가하였으므로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그래프

정부 간접지원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지각된 사회적가치지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성과가 증가하는 강화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정부 간접지원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지각된 사회적가치지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성과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정부 간접 지원의 수준이 낮은 범주에서 사회적가치지향성의 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위험감수성 투입		네트워크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021	-.014	.046	.031	.021	.014
연령	-.229	-.374**	-.242	-.396***	-.118	-.193	-.118	-.193
학력	.043	.042	-.011	-.011	-.057	-.055	-.044	-.043
매출액	.125	.205*	.098	.162	.079	.130	.052	.085
근무년수	.018	.028	.003	.005	.002	.004	.006	.009
위험감수성			.306	.332***	.348	.378***	.327	.355***
네트워크지원					.412	.442***	.394	.424***
위험감수성*네트워크							-.124	-.129
R ²	.135		.234		.388		.402	
R ² 변화량	.135		.099		.154		.014	
F	3.278**		5.309***		4.842***		4.406***	
F변화량	3.278**		13.508***		25.936***		2.369	

분석결과 3단계 사회적네트워크가 유의미한 영향($\beta=.442, p<.001$)을 보였으나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1)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제적성과 간 영향관계에서 정부의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핀 결과 사회적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 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의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가설 4-1, 4-2, 4-3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4-13>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통제변수⇒경제적성과		혁신성 투입		직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62	-.180	-.177	-.121	-.178	-.122
연령	-.120	-.199	-.136	-.226	-.109	-.180	-.108	-.178
학력	-.044	-.044	-.045	-.044	-.149	-.147	-.147	-.146
매출액	-.005	-.008	.009	.016	-.016	-.027	-.013	-.021
근무년수	.098	.155	.105	.166	.114	.181	.112	.178
혁신성			-.188	-.210*	-.342	-.381***	-.341	-.381**
직접지원						.370*	.324	.368*
혁신성*직접지원							.018	.018
R ²	.070		.113		.204		.204	
R ² 변화량	.070		.043		.091		.000	
F	1.580		2.205*		3.773**		3.274**	
F변화량	1.580		5.026*		11.806**		.035	

분석결과 3단계 직접지원이 유의미한 영향($\beta=.370, p<.05$)을 보였으나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혁신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4>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통제변수⇒경제적성과		위험감수성 투입		직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46	-.169	-.196	-.135	-.194	-.133
연령	-.120	-.199	-.120	-.199	-.095	-.157	-.096	-.159
학력	-.044	-.044	-.043	-.042	-.088	-.087	-.089	-.089
매출액	-.005	-.008	-.004	-.006	-.019	-.031	-.020	-.034
근무년수	.098	.155	.098	.155	.103	.163	.106	.167
위험감수성			-.007	-.008	-.070	-.077	-.069	-.076
직접지원					.177	.201	.179	.203
위험감수성*직접지원							-.017	-.015
R ²	.070		.070		.101		.101	
R ² 변화량	.070		.000		.031		.000	
F	1.580		1.305		1.655		1.437	
F변화량	1.580		.006		3.560		.023	

분석결과 2단계 위험감수성과 3단계 직접지원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5>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경제적성과		혁신성 투입		직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62	-.180	-.177	-.121	-.178	-.122
연령	-.120	-.199	-.136	-.226	-.109	-.180	-.108	-.178
학력	-.044	-.044	-.045	-.044	-.149	-.147	-.147	-.146
매출액	-.005	-.008	.009	.016	-.016	-.027	-.013	-.021
근무년수	.098	.155	.105	.166	.114	.181	.112	.178
혁신성			-.188	-.210*	-.342	-.381***	-.341	-.381**
직접지원						.370*	.324	.368*
혁신성*직접지원							.018	.018
R ²	.070		.113		.204		.204	
R ² 변화량	.070		.043		.091		.000	
F	1.580		2.205*		3.773**		3.274**	
F변화량	1.580		5.026*		11.806**		.035	

분석결과 3단계 직접지원이 유의미하였으나($\beta=.370$, $p<.05$)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직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제적성과 간 영향관계에서 정부의 간접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핀 결과 사회적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의 간접지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가설 4-4, 4-5, 4-6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4-16>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경제적성과		혁신성 투입		간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62	-.180	-.212	-.146	-.201	-.138
연령	-.120	-.199	-.136	-.226	-.049	-.082	-.051	-.084
학력	-.044	-.044	-.045	-.044	-.098	-.097	-.105	-.104
매출액	-.005	-.008	.009	.016	.033	.055	.043	.072
근무년수	.098	.155	.105	.166	.051	.080	.048	.075
혁신성			-.188	-.210*	-.262	-.292**	-.256	-.285**
간접지원					.469	.384***	.424	.347**
혁신성*간접지원							.085	.080
R ²	.070		.113		.235		.240	
R ² 변화량	.070		.043		.122		.005	
F	1.580		2.205*		4.521***		4.022***	
F변화량	1.580		5.026*		16.456***		.637	

분석결과 3단계 간접지원이 유의미하였으나($\beta=.384$, $p<.001$)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혁신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7>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경제적성과		위험감수성 투입		간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46	-.169	-.201	-.138	-.196	-.135
연령	-.120	-.199	-.120	-.199	-.031	-.052	-.024	-.040
학력	-.044	-.044	-.043	-.042	-.074	-.073	-.078	-.078
매출액	-.005	-.008	-.004	-.006	.021	.034	.029	.049
근무년수	.098	.155	.098	.155	.051	.080	.041	.064
위험감수성			-.007	-.008	-.101	-.111	-.103	-.113
간접지원					.425	.347**	.410	.335**
위험감수성*간접지원							.078	.070
R ²	.070		.070		.166		.171	
R ² 변화량	.070		.000		.096		.004	
F	1.580		1.305		2.933**		2.621*	
F변화량	1.580		.006		11.878**		.53	

분석결과 3단계 간접지원이 유의미하였으나($\beta=.347, p<.01$)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8>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경제적성과		사회적가치지향성 투입		간접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06	-.141	-.120	-.083	-.098	-.068
연령	-.120	-.199	-.169	-.279*	-.109	-.179	-.123	-.204
학력	-.044	-.044	-.043	-.043	-.097	-.096	-.093	-.092
매출액	-.005	-.008	.019	.032	.054	.090	.047	.078
근무년수	.098	.155	.112	.177	.063	.100	.073	.115
사회적가치지향성			-.162	-.166	-.277	-.284**	-.327	-.335**
간접지원					.477	.390***	.554	.454***
사회적가치×간접지원							-.148	-.119
R ²	.070		.091		.214		.223	
R ² 변화량	.070		.021		.123		.009	
F	1.580		1.744		4.005**		3.660**	
F변화량	1.580		2.456		16.055***		1.191	

분석결과 3단계 간접지원이 유의미하였으나($\beta=.390, p<.001$) 4단계 상호작용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간접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가.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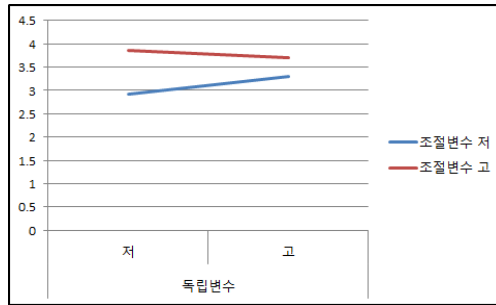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살핀 결과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 5-1은 채택되었다.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5-2, 가설 5-3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4-19>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혁신성 투입		네트워크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022	-.015	.032	.022	.010	.007
연령	-.229	-.374**	-.211	-.345**	-.102	-.167	-.099	-.161
학력	.043	.042	.044	.043	.011	.011	.017	.016
매출액	.125	.205*	.109	.179	.097	.159	.055	.090
근무년수	.018	.028	.010	.015	.011	.017	.010	.015
혁신성			.212	.234*	.196	.217*	.156	.172*
네트워크지원					.359	.386***	.387	.416***
혁신성×네트워크							-.240	-.250**
R ²	.135		.188		.307		.361	
R ² 변화량	.135		.053		.118		.055	
F	3.278**		4.021**		6.508***		7.210***	
F변화량	3.278**		6.827*		17.580***		8.713**	

분석결과 통제변수만 투입되었을 경우 회귀모형은 사회적성과를 13.5%만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혁신성이 유의미한 영향($\beta=.234$, $p<.05$)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이 5.3%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는 유의미한 영향($\beta=.38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11.8% 증가하였다. 4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한 영향($\beta=-.250$, $p<.01$)을 보여 설명력이 5.5% 증가하였다. 모형의 설명력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F변화량=8.713,

p<.01) 혁신성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혁신성과 사회적 성과 간 관계에서 네트워크 조절효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지각된 혁신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성과가 강화되는 강화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사회적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지각된 혁신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정의 방향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0>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위험감수성 투입		네트워크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021	-.014	.046	.031	.021	.014
연령	-.229	-.374**	-.242	-.396***	-.118	-.193	-.118	-.193
학력	.043	.042	-.011	-.011	-.057	-.055	-.044	-.043
매출액	.125	.205*	.098	.162	.079	.130	.052	.085
근무년수	.018	.028	.003	.005	.002	.004	.006	.009
위험감수성			.306	.332***	.348	.378***	.327	.355***
네트워크지원					.412	.442***	.394	.424***
위험감수성*네트워크							-.124	-.129
R ²	.135		.234		.388		.402	
R ² 변화량	.135		.099		.154		.014	
F	3.278**		5.309***		4.842***		4.406***	
F변화량	3.278**		13.508***		25.936***		2.369	

분석결과 3단계 사회적네트워크가 유의미한 영향($\beta=.442, p<.001$)을 보였으나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사회적가치지향성 투입		네트워크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041	-.028	-.147	-.100	-.083	-.056	-.065	-.044
연령	-.229	-.374**	-.099	-.162	-.043	-.071	-.051	-.083
학력	.043	.042	.042	.041	.018	.017	.020	.020
매출액	.125	.205*	.061	.101	.064	.106	.059	.097
근무년수	.018	.028	-.019	-.030	-.011	-.017	-.011	-.017
사회적가치지향성			.432	.439***	.342	.347***	.314	.319**
네트워크지원					.270	.290**	.287	.308**
사회적가치네트워크							-.083	-.076
R ²	.135		.286		.346		.351	
R ² 변화량	.135		.151		.061		.005	
F	3.278**		6.931***		7.796***		6.900***	
F변화량	3.278**		21.928***		9.559**		.759	

분석결과 3단계 사회적네트워크가 유의미한 영향($\beta=.290, p<.01$)을 보였으나 4단계 상호작용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살핀 결과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혁신성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6-2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6-1, 6-3은 기각되었다.

<표 4-22>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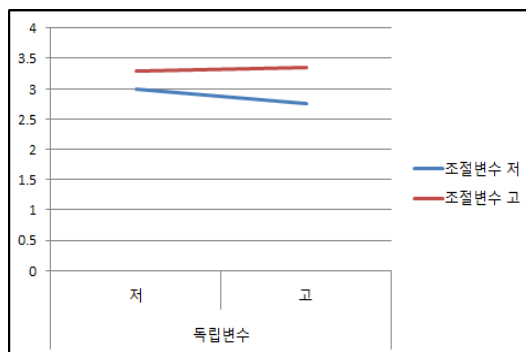
변수	통제변수⇒경제적성과		혁신성 투입		네트워크지원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62	-.180	-.208	-.143	-.198	-.136
연령	-.120	-.199	-.136	-.226	-.028	-.047	-.030	-.049
학력	-.044	-.044	-.045	-.044	-.077	-.077	-.080	-.079
매출액	-.005	-.008	.009	.016	-.003	-.005	.015	.026
근무년수	.098	.155	.105	.166	.107	.169	.107	.170
혁신성			-.188	-.210*	-.204	-.227*	-.186	-.207*
네트워크					.358	.389***	.346	.375***
혁신성*네트워크지원							.106	.112
R ²	.070		.113		.233		.244	
R ² 변화량	.070		.043		.120		.011	
F	1.580		2.205*		4.472***		4.114***	
F변화량	1.580		5.026*		16.149***		1.468	

분석결과 3단계 사회적네트워크는 유의미하였으나($\beta=.389$, $p<.001$)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혁신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3>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경제적성과		위험감수성 투입		네트워크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46	-.169	-.189	-.130	-.120	-.083
연령	-.120	-.199	-.120	-.199	-.015	-.024	-.016	-.026
학력	-.044	-.044	-.043	-.042	-.081	-.080	-.115	-.114
매출액	-.005	-.008	-.004	-.006	-.020	-.034	.055	.091
근무년수	.098	.155	.098	.155	.097	.154	.088	.140
위험감수성			-.007	-.008	.029	.032	.088	.097
네트워크					.350	.380***	.398	.432***
위험감수성*네트워크							.343	.361***
R ²	.070		.070		.184		.293	
R ² 변화량	.070		.000		.114		.109	
F	1.580		1.305		3.315**		5.273***	
F변화량	1.580		.006		14.367***		15.672***	

분석결과 3단계 사회적네트워크가 유의미하였으며($\beta=.380$, $p<.001$) 4단계 상호작용항의 영향도 유의미하게($\beta=.361$, $p<.001$)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게(F변화량=15.672, $p<.001$) 증가하여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 조절효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지각된 위험감수성에 무관하게 경제적성고가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사회적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위험감수성이 낮은 경우 경제적성고가 위험감수성이 높은 경우보다 더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 4-24>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변수	통제변수⇒사회적성과		사회적가치지향성 투입		네트워크 투입		상호작용항 투입	
	B	β	B	β	B	β	B	β
성별	-.245	-.169	-.206	-.141	-.103	-.070	-.087	-.060
연령	-.120	-.199	-.169	-.279*	-.079	-.130	-.086	-.141
학력	-.044	-.044	-.043	-.043	-.083	-.082	-.080	-.079
매출액	-.005	-.008	.019	.032	.024	.040	.020	.032
근무년수	.098	.155	.112	.177	.126	.199	.126	.199
사회적가치지향성			-.162	-.166	-.307	-.314**	-.331	-.340**
네트워크					.436	.474***	.451	.489***
사회적가치네트워크							-.073	-.067
R ²	.070		.091		.253		.257	
R ² 변화량	.070		.021		.161		.004	
F	1.580		1.744		4.979***		4.401***	
F변화량	1.580		2.456		22.253***		.518	

분석결과 3단계 사회적네트워크가 유의미하였으나($\beta=.474$ $p<.001$) 4단계 상호작용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미하지 않게 증가하여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5> 가설검증 요약

	가 설 내 용	결 과
가설 1	1-1 혁신성은 사회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위험감수성은 사회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2-1 혁신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위험감수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사회적가치지향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3-1 정부직접지원은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2 정부직접지원은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3 정부직접지원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4 정부간접지원은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3-5 정부간접지원은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6 정부간접지원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 4	4-1 정부직접지원은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4-2 정부직접지원은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4-3 정부직접지원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4-4 정부간접지원은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4-5 정부간접지원은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4-6 정부간접지원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5	5-1 사회적네트워크는 혁신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5-2 사회적네트워크는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5-3 사회적네트워크는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6	6-1 사회적네트워크는 혁신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6-2 사회적네트워크는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6-3 사회적네트워크는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 내의 종사자들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외부적 요인인 정부의 직접·간접적인 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의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성희·이경탁(2017)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공익성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기업의 공익성과 및 고용 창출을 모두 증가시키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사회적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의 조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창권·방호진(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 핵심역량 중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네트워크는 경제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혁신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의 조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김형돈(2019)은 문헌 고찰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정부지원이 경제적성과를 감소시키고 사회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혁신성과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사회적성과 간의 사이에서 정부 간접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론은 정부의 간접지원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경제적성과 간의 사이에서는 정부 간접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결론은 정부의 직접지원이 많아질수록 경제적성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박진아 등(2016)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적 역할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진취성과 직무 관련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이 경제적 기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지원과 사회적네트워크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위험감수성은 경제적성과 사이에서 사회적네트워크는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론은 사회적네트워크가 활발할수록 사회적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추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일반조직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안을 찾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주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조직과 차별화되는 사회적가치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소규모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직내부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목표를 놓치지 않고 조직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도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 및 민간의 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성과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사회적성과의 양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정착이 요구되며, 현재의 제도적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성과를 인증형태별 사회적 목적 실현의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육성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내 사회적네트워크 등 환경적 요소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별 사회적네트워크의 지역사회화가 요구된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은 지방정부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의 특색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중심으로 사회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고 중간지원기관의 실제적 활동체제를 갖추어 지역기업과 지역중간조직의 협조로 다른 다양한 자원의 확장하는 연결 고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기여도,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무형의 자원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네트워크로 한정된 점이다. 개인과 조직 그리고 외부 환경 자원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수를 채택하였으나 기존의 사회적경제의 조직성과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향후에는 연구의 범위를 조직에서의 자원 또는 개인적인 면에서의 다양한 자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정하였으나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정부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간 차이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더 다양한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과 부수를 확장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논 문

- 강문실·김윤숙(2016).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조직성과간의 조직몰입 조절효과. *상업교육연구*, 30(3), 307-329.
- 강석민(2014).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적기업연구*, 7(2), 3-19.
- 고명일·양난주(2019).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높이는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3), 49-73.
- 김숙연(2016). 사회적기업 가치가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 회계 연구*, 50, 171-192.
- 김숙연, 강수진(2017),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사회적 경제와 정책연구*, 7(2), 1-19.
- 김순양(2018).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지방정부 연구*. 12(1), 31-59.
- 김신양(2022), “200년 사회적경제의 역사 속 한국의 사회적경제,” *공동체문화와 민속연구*, 4, 101-140.
- 김용태(2012). 사회적기업의 창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부지원 정책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중앙대학교.
- 김재선(2011).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 김재홍·이재기(201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한국행정논집*, 24(4), 1037-1063.

- 김형돈(2019).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4), 23-47.
- 김희철(2017).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7), 342-9.
- 남승균(2016). "지역경제의 내발적발전과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연구." 국내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노부타카, 호소우치(2007),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희망제작소 뿌리총서-04.
- 도수관(2021). 사회자본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그리고 배분적 형평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23(1), 1-38.
- 문주상·김완민·배은진(2020).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네트워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63, 293-310.
- 박진아(2012).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귀희(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227.
- 박현희·심동철(2017). 사회적기업의 지역관계와 조직역량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정책학회추계학술대회, 2007년 9월, proceeding, 15-23.
- 송인방(2013).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창업 환경의 변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4(1), 365-402.
- 송재일(2013).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로서 정관자치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1(2), 141-178.
- 신경희(2012).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연구원정책과제연구보고서.

- 윤경옥·손희정·오웅락(2018).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및 정부지원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저널, 19(2), 89-110.
- 이광우·권주형(2009). “사회적기업의 역량요인이 공익적 성과와 영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3(1), 261-292.
- 이용탁(2009).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기업연구, 2(2), 5-28.
- 이진민·이상식(2017).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2(2), 123.
- 이창권·방호진(2019).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 연구. 10(2), 25-55.
- 임경수·하태영(2013).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연구, 6(1), 83-95.
- 임준형·김장호·전의천(2013).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산업경제연구, 26(1), 377-407.
- 임재웅·장석인(2018).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부지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7(2), 235-258.
- 임현지(2019). 사회적기업 성과의 영향요인: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오상환(2018).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지향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우형록·권정연(2013). 기업가적 지향성과 흡수역량이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21(2), 57-84.
- 윤경옥·손희정·오웅락(2018).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및 정부지원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9(2), 89-110.
- 장성희·반성식(2010). “사회적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 23(6), 3479-3496.
- 장성희·이경탁(2017).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과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2, 256-277.
- 장영란·홍정화·차진화(2012).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0(2), 175-207.
- 전현수·최균(2020). "사회적기업의 조직역량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성과의 조절효과 분석." 사회적기업연구 13.3, 139-166.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정원식(2009).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 SROI 모형을 활용한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조대엽·이명진·김수한·김원섭·김철규·김태완·김홍주·남윤철·박정민·박혜린·심재만·이해진·진정란·천희주(2019). 시장과 협력: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탐색. 나남.
- 조상미·간기현·조정화(2021), "사회적기업가 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국내연구 경향분석."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4(2), 137-173.
- 조영복(2007).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결과와 과제. 노동리뷰, 35, 48-58.
- 조희진·장용석(2016),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 한국 정책학회보, 25(4), 329-358.
- 최미금(2017).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 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 최무현·고은주(2019).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자산활용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9.2, 37-61.
- 최석현·남승연(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 연구. 26(1), 133-155.
- 최조순(2012).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2022).

현용수(2014).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효석·김예경(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6(1), 1-29.

2. 국외문헌

- Aiken, M(2006). “영국의 사회적기업,” 국제노동브리프, 06-2-2,. 22-30.
- Anderson, J. C. · J.A. Narus(1990).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Journal of Marketing*, 54(1), 42-58.
- Baum J. R. · Locke, E. · K.G.Smith(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Campbell, S.(1998). “Social entrepreneurship: How to develop new social purpose business ventures.” *Health Care Strategic Management*, 16(5): 1718.
- Dees, J. G(1998). *Enterprising nonprofits: What do you do when traditional sources of funding fall short.* *Harvard Business Review*, 76(1), 55-67.
- Defourny, J. · Develtere, P. · Fonteneau, B.(Eds.),(2000).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Leuven and Liège, HIVA and Centred’ Economie Sociale.
- Helm, S. T. · F. O. Andersson(2010). “Beyond taxonomy: An empirical vali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20(3), 259-276.
- Jarillo, J. C(1989). “Entrepreneurship and Growth: The Strategic Use of External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4(2), 133-147
- Kuratko D F. · R, M. Hodgetts(2004).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Practice* Mason, Ohio: Thomson South Western.
- Lumpkin, G. T. · G. G. Dess(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tsuno, K · John, T. M. · Ozsorner, A(2002).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6, pp.18-32.
- Merz, G. R. · M. H Sauber(1995). Profiles of Managerial Activities in Small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7), 551-564.
- Miles, M-P · Verreynne, M-L · Luke, B · Eversole, R · Barraket, J(2013).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Vincentian Values and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 Review of Business.; 33(2), 91-102.
- Morris, M. H. · G. W. Paul(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in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47-259.
- Moshe Sharir · Miri Lerner(2006). Gauging the success of social ventures initiated by individual social entrepreneurs.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6-20.
- Peredo, A. M. · M. McLean(2006).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56-65.
- Rauch, A. · Wiklund, J · Lumpkin, G. T · M. Frese(2009).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 assessment of past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761-787.
- Sexton, D. L · N. B. Bowman(1986),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ggestions for increasing effective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2), 18-25.

- Walker, G · Kogut, B · W. Shan(1997). “Social capital, structural holes and the formation of an industry network.” *Organization Science*, 8(2), 109–125.
- Weerawardena, J. G. · S. Mort(2006). “Investiga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 mult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21–35.
- West, S G. · J. finch, · P. J. Curran(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56–75), Thousand Oaks, CA:Sage.
- Zhao, L. · J. D. Aram(1995), Networking and growth of young technology-intensive venture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5), 349–370.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늘도 정진하고 계시는
귀 조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학문적 실천적
차원에서만 귀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답변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교수 : 정진철

연구자 : 국승희

I. 다음은 사회적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V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새로운 시장개척을 선호한다.					
2	우리 조직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관심이 많다.					
3	우리 조직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4	우리 조직은 사업수행에 있어 경쟁적 태도를 갖는다.					
5	우리 조직은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가려고 노력한다.					
6	우리 조직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 창출에 가능한 사업에 도전한다.					
7	우리 조직은 위험부담 있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8	우리 조직은 이익 추구를 위해 적극적이고 가감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9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 일자리제공 및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10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11	우리 조직은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					
12	우리 조직은 사회적 직무에 대해 헌신적이다.					
13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14	우리 조직은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우선시 한다.					

II. 다음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V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적절하다.					
2	우리 조직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관심이 많다.					
3	정부의 사회적경제의 상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는 적절하다.					
4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지원은 적절하다.					
5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영지원은 적절하다.					
6	정부의 기업가 육성사업은 적절하다.					
7	정부의 기업가에 대한 교육 및 아카데미는 적절하다.					

Ⅲ. 다음은 귀사의 사회적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V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지역사회부터 인적, 물질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고 있다.					
2	우리 조직은 인근 지역기업과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3	우리 조직은 정부 및 지자체와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4	우리 조직은 어려운 문제나 조직발전을 위해 회사 내,외부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Ⅳ. 다음은 귀사의 성과중 사회적성과 및 경제적성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V체크해 주십시오

설 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	우리 조직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우리 조직은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우리 조직은 이익을 공익적 사업에 투자한다.					
5	우리 조직은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6	우리 조직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7	우리 조직은 수익적 목표를 달성하였다.					
8	우리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9	우리 조직은 매출에 비해 인건비 비율이 적당한다.					
10	우리 조직은 경제자립도가 향상되고 있다.					

VI. 다음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3.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대학생 ③ 대 졸 ④ 대학원졸

4.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① 5,000만원 미만 ② 5,000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③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④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⑤ 50억원 이상

5. 귀사의 소재지는?
① 광주 ② 전남권 ③ 기타 ()

6. 귀사의 업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6년 미만 ④ 6년 이상 - 9년 미만 ⑤ 12년 이상

7. 귀사의 고용규모는?
① 10인 미만 ② 10인 이상 - 30인 미만
③ 30인 이상 - 60인 미만 ④ 60인 이상 - 90인 미만 ⑤ 90인 이상

8. 귀하의 직급은?
① 대표(CEO) ② 임원(부사장, 이사, 전무, 상무) ③ 기타()

♣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정의 있는 응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